

출판

한국불교
출판 70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IT시대에 종이책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출판 포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불교출판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해 대략 462종의 신간을 선보였다. 전체 405종을 발간했던 2013년에 비해 15% 가까이 더 늘어난 수치다. 출판인들이 일부 작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이토록 불서 발간을 이어가는 이유는 자명하다. 문서포교를 통한 불교영역의 확대라는 사명감 때문이다. 불서에는 부처님 가르침은 물론, 삶의 지혜가 오롯이 들어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등극되면 많은 이들에게 포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불교출판계를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해방 이후 한동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서 출판은 1960년대 초 법보원(法寶院)이 출범하면서 명맥을 이었다. 불교경전 한글화와 대중화에 깊은 관심을 갖던 석주 스님이 주도해서 만든 법보원은 1961년 설립된 이래 최초의 <불교사전>을 간행한데 이어 <열반경> <법화경> <유족단경> 등을 한글본으로 간행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대승기신론필사기(196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1962)> <고려국보조선사어록(1963)> 등 1972년까지 30여종의 불서를 간행했다. 또한 법보원이 왕성하게 출판활동을 하면서 1960년대 후반 들어 원음각(1966), 보련각(1968), 불서보급사(1968), 흥법원(1968) 등의 출판사가 문을 열었다. 1960년대 후반 설립된 이들 출판사는 1970년대 후반까지 출판활동을 주도하면서 특정계층이 아닌 보다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불교출판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음각은 당시 불교계 안팎서 크게 화제를 모았던 이기영의 <원효사상>, 서경수의 <세속의 길 열반의 길> 등을 펴내면서 주목 받았고, 보련각은 경전과 강원교재의 영인본 출간에 매진했다. 또한 흥법원도 <불교교리문답> <고승법어집> 등을 출간하면서 불서출판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1980년 전후 전문화된 불교출판사가 생겨났다. 1979년 월간잡지 <불광>을 간행하면서 부설로 설립한 불광출판부를 시작으로 1980년 문을 연 민족사와 경서원이 그것이다.

불광출판부는 광덕 스님의 저서는 물론 <바라밀총서>를 비롯해 신학과 선 관련 단행본을 내놓으며 전문화된 출판 모습을 보였다. 경서원은 영세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학술관련 불서 발간에 주력했다. 그리고 민족사는 1980년대에 외국불서 번역 출판의 장을 열었다. 그리고 여기서 축적한 해외 도서정보를 활용해 번역 출판의 길을 열었고,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외국불서를 번역 출판한 것이 무려 80종을 넘어서기도 했다.

민족사의 활약에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후 불일출판사(1984), 대원정사(1987), 장경각(1987), 우리출판사(1988), 불교시대사(1990), 효림(1992), 불지사(1992) 등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불교출판의 역량이 확대됐다. 그리고 1989년에는 이들 출판사에서 만들어내는 불교서적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출판회사 겸 출판사인 운주사가 오픈했다. 그러나 불서인구 확대에 잠시 호황을 맞

던 불교출판시장은 1998년 경제 환파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30여 개에 달하던 불교전문출판사 중 40% 정도가 문을 닫았다. 불교출판사는 예나 지금이나 몇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며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불광> <민족사> <운주사> <조계종출판사> <불교시대사> <담양북스> 등은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출판사들의 모임인 불교출판문화협회(이하 불출협)도 2005년 발족돼 현재 20여 출판사가 회원으로 등록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불출협은 매년 조계종 문화부와 공동으로 올해의 불서 10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불서관련 포상은 예전에도 있었다. 1990년 불교신문 3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출판문화상이 제정돼 93년까지 개최했는데, 특히 이 상은 일반출판사에서도 관심이 높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故 최인호의 <깊은 길>이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불서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불교계는 물론 사회 안팎은 어둡고 혼란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불서로는 1948년 출간된 고유섭의 <조선탑파의 연구>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간이 어려웠다. 1962년 통합종단 출판과 함께 1960년대는 '역경

1960~70년도 다양한 불서 쏟아져 나와
1980년대, 일본 불서 등 번역서 출판 붐
1990년대, 선서 관련 책 출간 대중화
2000~현재, 명상·뇌과학 서적 등 인기

출판의 시대'였다. 동국역경원 설립과 팔만대장경 완역 시작에 대한 조명기 당시 동국대총장의 처사는 1960년대 불교출판의 현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역경출판에 불을 당긴 것은 1963년 대한불교청년회의 <우리말 팔만대장경> 출간이다.

이에 힘입어 1964년 종립 동국대 동국역경원 창설과 더불어 척박한 불교출판을 주도하게 된다. 역경원은 <장아함경> <불보살경> <중아함경> <화엄경> 등을 잇달아 출간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뤄진 이기영의 <원효사상> 출간은 당시 대내외 학계의 큰 관심과 방향을 일으켰다. 이시기에는 파월 장병을 위한 불서보내기 운동도 전개했다.

1970년대 불서출판의 시작은 <한글불교사전>(1972)이 열었다. 당시 언론은 '우리말 불교성전 출간, 30일 회향은 불자들의 오랜 숙원 성취, 통불교적 인 선택 지녀, 한국불교의 실질적 토대화 이뤄'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붙였다. 역경원의 <고려대장경>(1976) 영인본 전 48권 완간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선종영가집>, <불교사전> 등 여전히 불교출판의 중추역할을 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기치로 수필, 에세이, 시 등 비문학계도 불꽃처럼 쏟아졌다.

한 권의 佛書는 한 명의 法師...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는 매년 공동으로 불교출판문화 활성화에 앞장서는 출판사를 선정, 올해의 불서 10을 포상한다. 사진은 2014년 행사 모습



한 여성이 일반대형서점의 불서코너에서 불서 읽기에 몰두하고 있다.



제6회 불교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10에 선정된 출판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1960~1970년대 불교계를 주도한 불교출판이 다매체의 등장과 대중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1980년대 들어서는 비주류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서, 전문서 등과 김성동의 <만다라>를 시작으로 불교소설의 시원을 이었다. 특히 불교학에 있어서 연구단계로 접어드는 개설서가 발간되기도 한 시점이다. 광복 이후 불교학의 최고 대가로 불리는 고익진 박사의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1984)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한 불교계의 문제를 지적한 저서가 됐다.

1980년 출판의 특징은 일서(日書) 등 번역서의 출판 붐이다. 현대불교학의 최고 집산지라 불리는 일본서적들의 번역본들이 대승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출간되기 시작해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출판은 98년 IMF를 중심으로 크게 양분된다. 초반은 사회와 중생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던지는 사회운동사적 수필류가 큰 인기를 끌었고, 1998년 이후 불교출판은 세기말적인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문명의 대안으로 제시받고 있는 선에 관한 선서출간이 붐을 이룬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명상류와 뇌과학, 정신

의학 서적 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 큰 인기를 누린 책이 <불광>의 <붓다브레인>이다. 불교명상이 사람의 뇌구조를 변화, 발달시킨다는 연구내용을 담은 이 책은 신경심리학과 명상 방면에서 잘 알려진 릭 헨스와 신경학자 리처드 멘디우스가 연구한 뇌과학 전반을 집대성했다. 마음훈련을 통한 뇌 변화의 가능성, 일상에서의 감정변화에 따라 실제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과학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냈다. 출간 20일만에 1만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불광은 <붓다브레인> 외에도 <붓다에게 배운 마음 치료 이야기> <심리치료와 불교> <번뇌리셋수첩> <체럼으로 떠나는 네비명상> 등을 내놓으면서 불교출판의 영역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주사가 시도한 '밝은 사람들 총서' 시리즈도 한동안 눈길을 끌었다.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안목과 사상을 집대성한 '밝은...' 시리즈는 <나, 버릴 것인가 찾는 것인가>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꿈,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인가>에 이어 올해 마지막 <행복, 재움으로 얻을 것인가 비움으로 얻는가>를 출간했다. 매년 출간과 동시에 책에 나온 저자들이 한자리에 모

여 연찬회를 열면서 다양한 시각을 통해 개념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더욱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동국대출판부의 공공행진도 2010년 눈에 띄었다. 동국대출판부는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명저로 평가받는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를 93년만에 우리말로 완역했다. 1544년에 이르는 한국불교사를 총결집한 역사, 교리, 불교문화의 보고인 <조선불교통사>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역주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주사업을 통해 8년만에 완성한 결실이다. 또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7권을 냈고 향후 10년간 250권에 달하는 전서를 편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조계종의 주요 표준서적을 전담하고 있는 조계종출판사도 <부처님 생애> <조계종선원정규> <남북불교 교류의 흐름> 등과 더불어 <왜 부처님은 주지를 하셨을까> <할!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었다> <원더랜드> 등 흥미를 끄는 다양한 불서들을 잇따라 출간했다. 특히 오휴 스님과 신경림 시인의 만남과 대화를 그린 <열흘간의 만남>과 도법스님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지>는 모두 조계종출판사가 펴낸 책들로 독자와 출판계의 호평을 받았다. 스님들

은銀

염주 해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9mm 금강제인팔찌 B형 115,000원

10mm 반아심경 평반지 42,000원

10mm 반아심경 회전반지 84,000원

9mm 금강저팔찌 115,000원

3mm 4mm 5mm 6mm 7mm 8mm 10mm

「인터넷 : 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목걸이·팔찌·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주얼드림)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퇴마·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

출판

한국불교
출판 70년

90년대 이후 법어, 교리, 명상서 등 봇물



지난 100여년 동안 불교잡지는 포교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사진은 현재 출간되고 있는 불교잡지들.

의 수행에세이와 공부이야기로 불교출판시장의 한 축을 이끄는 클리어마인드 <젊은날의 깨달음> (할리우드 붓다) <스님도 군대 가나요> (이게 아인디) <살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 (숙제 이번 생에 해내리) 등 왕성한 출간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한겨레출판사가 펴낸 <스님의 주례사> 21세기북스가 출간한 일본인 스님 코이케 류노스케의 <생각바라기연습> 등도 2000년대 들어 서점가서 큰 인기를 누렸다.

불교잡지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만 해도 불교잡지는 오래 간행되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불교잡지의 수도 조금씩 증가하며 장수 잡지로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법시>(법지사, 1963~1992)와 <법륜>(월간법륜사, 1968~1993)은 중간에 잠시 중단됐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명맥을 유지한 장수 역사를 기록했다.

그 외에 1967년 대륜 스님이 창간한 <불교계>는 1970년 <불교>(월간불교사, 1970~)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는 1970년 비구?대처의 분쟁 결과 한국불교 태고종이 새로 창종됐을 때 초대 종정으로 취임한 승려이다. 그가 창간한 <불교>는 태고종 기관지로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불교> 제 1호에서는 1920년대 기관지인 <불교>의 전통을 정식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역사성에서도 가장 오래됐다고 하겠다. 그리고 <불교>와 함께 1970년대 창간된 잡지로 오늘날까지 간행되는 <불광>(불광출판사, 1974~)이 있다.

1980~90년대는 불서 출판과 함께 불교잡지의 황금기라 할 정도로 많은 잡지가 속속 생겨났다. 중단 등록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각종 불교단체, 각 지방의 크고 작은 사찰 및 개인에 이르기까지 많다. 분명한 것은 이전 시기보다 잡지 출판의 여건이 좋아졌고, 공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의 독자들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잡지는 한국적 근대불교학 형성의 기초를 살피볼 수 있는 1차 사료를 담고 있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 전문 학술잡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일반 대중 잡지에서는 학술적 성격의 글 대신 지식인들의 칼럼이나 에세이 등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초창기 잡지는 근대불교학과 불교문학을 위한 지식인들의 응용문으로 기능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기를 연구함에 있어 불교잡지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이다.

초창기 불교잡지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불교개혁론과 종교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다. 불교개혁론은 교육·포교·행정·사찰·승려 등 불교 집안의 모든 구태를 벗어던지고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도심불교를 표방하며 근대화에 불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엔 전통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개혁론은 체제 개선과 종단 설립 문제에 집중했고, 내부적으로 승려의 인식부터 변화야 함을 피력했다. 결국 불교 개혁을 통해 '문명'에 걸맞은 종교로서 위상을 세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개혁을 통해서만 종교적 위상을 세울 수는 없었다. 문명 종교에 부합하는 이론과 논리가 필요했다.

근현대 불교잡지는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에 주력했다. 불교 역사와 고승에 대한 탐구, 불교 유적지에 대한 탐방 등을 다룬 글들은 독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불교 전통의 계승과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특히 기행문학의 형식을 빌려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글은 잡지 간행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종교가 보편적으로 인간의 간절한 염원을 회구하여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는 것이라면, 문화는 종교성이 외면으로 형상화되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불교문화유산은 불교를 통해 바라는 인간의 염원이 예술성의 경지로 승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한국의 지정문화재 중 상당수가 불교 문화유산인 점을 감안한다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불교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불교잡지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추적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자부심을 동시에 갖게 한다. 불교잡지가 지닌 이 두 가지 특징은 결국 불교의 종교로서 성격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특수한 불교문화의 전통을 발굴하여 일반에 소개하고 한국문화로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일은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불교잡지는 오늘날 포교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강연이나 법회는 일회성인 데 비해 잡지는 반영구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여 포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단순히 일물

적인 주제나 장르로 엮은 단행본이나 소식을 전하는 목적이 강한 신문에 비해 당대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여러 필진의 참여와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라는 점도 잡지의 가장 큰 매력이다. 결국 이러한 매력에 불교잡지의 대중화 전략이 숨어 있다. 즉, 전문성을 갖추면서 지루함을 없앨 수 있는 기획과 편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양한 편집 전략은 초창기 불교잡지에서도 나타난다. 지식의 보급은 물론 독자층의 확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 문답란이나 여성란, 소년란, 현상공모와 같은 코너를 개설하였고, 불전의 번역 및 해설을 게재하여 어려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오늘날 잡지까지 이어진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추세가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가독성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여 삽화뿐 아니라 다양한 사진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그리고 초창기 잡지에서 불교의 포교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던 것 중의 하나는 불전의 번역이었다. 한문으로 된 부처님 말씀을 한글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당시 포교사업의 최우선이었을지도 모른다. 역경 사업의 선두주자는 백용성이었다. 그는 3·1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타 종교 신자들이 한글로 된 경전을 읽는 것을 보고 그렇지 못한 불교의 현실을 통탄했다. 그래서 출감 후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세워 조직적인 역경 사업을 전개했다. 한용운도 일찍이 "경전이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미신처럼 믿으니 종교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래서 1930년대 초 전주 안산사에서 한글 경전이 발견되었을 때 언어도(言語道)를 초월하는 쾌락과 환희를 느꼈다고 술회했다. 역경의 중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했고, 단행본뿐만 아니라 여러 잡지에 연재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초기 잡지에 게재된 경전의 단순 번역은 요즘 잡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경전 번역서가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서 이제는 쉽게 경전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단순 번역을 넘어 필자의 불

교학 지식을 반영하여 경전에 대한 강의 형식으로 꾸러지는 한다. 지식 열망의 창구가 제한적이었던 20세기 초반에는 비록 번역문만 게재하는 형식이었지만 불교 대중화를 위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현대 잡지서 불교 대중화를 위한 기획은 지식의 전달이나 종교성 추구보다는 현대인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생활법문 코너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불교와 현대과학' '불교와 21세기' 등 새롭게 바뀌어가는 일상 속에서 불교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을 담아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 잡지가 내건 지식을 보더라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대중과 더불어 생활하는 월간지'인 <불교세계>, '현실 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교양지'인 <불광> 등 이제 불교잡지의 주된 관심은 현대인의 삶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선(禪)불교와 불교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템플스테이나 수행수기 등을 다루는 코너가 눈에 보이게 늘고 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불교잡지는 포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세상에 빛을 본 잡지만 해도 아마 100종이 넘는 것이다. 특히 1970년 이후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잡지 수가 늘어났다. 1970년대에 창간되어 40년이 넘도록 간행되고 있는 <불교>와 <불광>과 같은 잡지도 있다. 또한 92년부터 발행된 대한불교진흥원의 <불교문화>, 1999년부터 월간으로 발행되는 <맑은소리 맑은 나라> 100호를 눈앞에 앞둔 <판전불은>, 한마음선원의 <한마음> 등이 현재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불교잡지들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터넷 잡지도 등장했다. 이로 인해 잡지의 역할이 웬만큼 이동한 면도 없지 않지만, 문서로서 잡지가 갖는 의미가 퇴색하지 않는 이상 불교잡지의 역사는 21세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불교의 대중화는 잡지의 목표가 아니다. 이제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근현대 불교잡지의 간행도 문서 포교 역사의 오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김주익 기자 kimj4217@hyunbul.com

인물로 보는 출판 70년

▲법정 스님

한국불교계의 영웅한 베스트셀러 작가를 한명 꼽으라면 단연코 법정 스님이다. <영혼의 모습> <서 있는 사람들>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등 40여 종 이상의 책을 펴내며 문서포교의 일등공신으로 자리잡았던 스님의 진가는 입적을 하고서도 더 크게 발휘됐다. 2010년 3월 11일 입적한 법정 스님이 남기고간 '맑고 향기로운 책'에 온 국민의



법정 스님

관심이 쏠렸다. 1년 내내 주요 서점가의 메인 자판은 법정스님의 저서들이 차지했다. 스님의 수필집 <아름다운 마무리, 2008>는 입적 직후 한국출판인회의가 집계하는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6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입적 이후 판매량만 25만부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일기일회>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산에는 꽃이 피네> <인연이야기> <오두막 편지> <홀로 사는 즐거움> <맑고 향기롭게> 등도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1976년 출간된 <무소유>도 추가발행이 시작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는 스님의 유언으로 인해 저서들의 회귀성을 높였지만, 2011년부터 스님의 유지에 따라 도서판매가 중단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

▲고은 시인

한국의 대표적인 참여시인이다. 1952년 20세의 나이로 입산해 승려가 되었으며 법명은 일초(一超)로 효봉선사의 사좌가 된 이래 10년간 참선과 방랑의 세월을 보내며 시작 활동을 하다가 1958년 <현대문학>에 시 <봄밤의 맑음> <눈길> <천은사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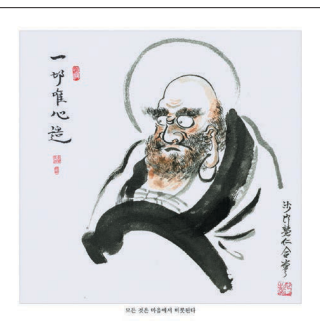
고은 시인

를 추천받아 등단하였다. 1960년 첫 시집 <피안감성>을 펴냈으며 1962년 환속해 시인으로, 어두운 독재시대에 맞서는 재야운동가로서의 험난한 길을 걸었다. 1974년 시집 <문의 마을에 가서>를 출간하며 시인으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했으며 이후 시·소설·수필·평론 등 100여 권의 저서를 간행했다. 1984년 <고은시전집>을 펴냈고 1986년 <만인보> 간행을 시작했다. 1987~94

년 서사시 <백두산>, 1999년 시집 <머나먼 길>을 간행하고, 미국 하버드대학 하버드엔칭 연구교수, 버클리대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전세계 10여개 언어로 50여권의 시집, 시선집이 간행됐다. 저서로는 <허공> <개념의 숲> <오십년의 사춘기> <고은 시선집> <고은 전집>(총 38권) 등 1백여 종이 있으며, 2010년에는 연작시편 <만인보>가 전 30권으로 완간됐다. 2011년에는 작품활동 5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을 전면에 내세운 연시집 <상화 시편>을 발표했다. 최근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으로 가는 길 (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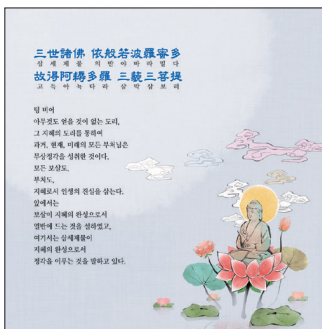
달마도 (대,소)



맑고 향기롭게 (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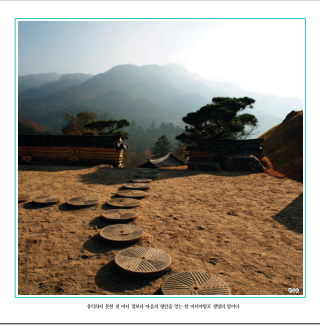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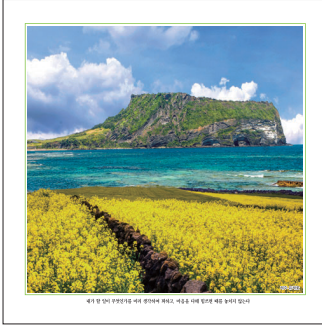
산사의 꽃 야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암자·포교당 등 대·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걸이